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린 송산 대종사의 전 세계 제자들이 2014 세계일화대회 참석을 위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 모였다.

“젊은이들의 어려움 알고 도와야”

전 세계 송산스님 제자들
18~19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제10회 세계일화대회 열어
세계생생 보살도실천 서원



걸겠다는 서원으로 '세계생생 보살도'를 주제로 열렸으며 미국과 독일, 호주, 중국, 이스라엘 등 1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산스님의 제자 350여 명이 동참했다.

세계일화대회는 송산스님이 세계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선불교 교류의 장으로 지난 1987년 수덕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3년마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열고 있다.

이번 세계일화대회를 준비한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어려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를 때 송산스님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셨다”며 “이번 행사도 은사 스님의 뜻을 기려서 요즘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은 “세계일화의 근본정신은 정법의 바른 안목과 나를 찾는 것으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혼탁해지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갈등과 시기와 투쟁이 한량없이 전개되고 있다”며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송산스님께서 평생 고구정녕 말씀하신 가르침을 되새기고 받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날에는 개막식에 이어 ‘오늘 날 젊은 세대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발표는 송산스님의 제자 중에 미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슬로바키

아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전문가가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을 발표하고 질문을 받는 순으로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불교의 참선수행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과 방법들에 대한 모색과 세계생생 대서원이 현세의 우리 삶에 제시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송산스님이 수행하고 오도한 마곡사 산내암자인 부용암을 답사하고 오도송 비석 제막식을 병행했다.

한편 세계일화대회에 참가한 송산스님의 제자들은 지난 21일 국제선원 무상사에서 스님의 열반 10주 추모다례를 봉행했으며 25일에는 서울대에서 송산스님의 해의 제자들이 그동안 수행하면서 느낀 것을 한국의 젊은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시영 총청지시장 isy@bulgyo.com

모로 설치됐으며, 서철교·이재윤 불교조각가를 비롯해 갤러리 나무, 마가 글라스, 금풍공예, 이미에 갈웃 등 ‘한국불교 국가대표’들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불교박물관 국제팀도 부스를 마련하고 내년 박람회를 홍보했다. ‘한국관’은 첫 입성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연인원 5만여명이 찾는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중국 관람객들은 한국불교문화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면서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같은 깊은 관심은 관련 작품과 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작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현지 대리점 개설을 문의하는 사례로 이어졌다. 특히 많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불교박람회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채석봉 불교박물관 국제팀장은 “국제불교시장에서도 한국불교의 문화와 산업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한 것이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첫 걸음을 뒀으므로 앞으로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진출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려 해외 업체와 바이어들이 한국 박람회를 찾아오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불사용품전람회는 중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관련 박람회다. 올해 전람회는 8만5000㎡에 이르는 면적의 전시장에 2000여 업체가 참여해 6800여 부스에서 불교용품을 진열했다.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등 15개 국가가 참가하는 전람회는 연인원 20만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전람회를 주관하는 진흥선전람유공사와 한국 불교박물관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한국관’ 개설에 이어, 내년 2015 불교박람회에서 ‘중국관’을 열기로 해 한국불교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음호 상세 보도 중국 사면=김하영 기자

한국불교용품 예술적 가치 ‘감탄’

중 불사용품 전람회 관람객
2015 한국박람회에 큰 관심

한국불교가 중국 최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박람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 2015불교박람회 운영위원회(공동대표 성직스님·지홍스님)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중국 사면(廈門)에서 열린 제9회 중국 사면 국제불사용품 전람회에 참석했다. 운영위는 불교박물관 국제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해외유망 확대와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전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했다. 그동안 한국업체가 개인자격과 이름을 갖고 중국 전람회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단체차원에서 ‘한국관’이라는 이름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관’은 면적 90㎡, 10부스 규모로 설치됐으며, 서철교·이재윤 불교조각가를 비롯해 갤러리 나무, 마가 글라스, 금풍공예, 이미에 갈웃 등 ‘한국불교 국가대표’들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불교박물관 국제팀도 부스를 마련하고 내년 박람회를 홍보했다. ‘한국관’은 첫 입성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연인원 5만여명이 찾는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중국 관람객들은 한국불교문화의 높은 수준에 감탄하면서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같은 깊은 관심은 관련 작품과 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작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현지 대리점 개설을 문의하는 사례로 이어졌다. 특히 많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불교박람회에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채석봉 불교박물관 국제팀장은 “국제불교시장에서도 한국불교의 문화와 산업이 통한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한 것이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 첫 걸음을 뒀으므로 앞으로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진출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려 해외 업체와 바이어들이 한국 박람회를 찾아오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불사용품전람회는 중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관련 박람회다. 올해 전람회는 8만5000㎡에 이르는 면적의 전시장에 2000여 업체가 참여해 6800여 부스에서 불교용품을 진열했다.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등 15개 국가가 참가하는 전람회는 연인원 20만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전람회를 주관하는 진흥선전람유공사와 한국 불교박물관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한국관’ 개설에 이어, 내년 2015 불교박람회에서 ‘중국관’을 열기로 해 한국불교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음호 상세 보도 중국 사면=김하영 기자

봉은사 “고려 오층석탑 돌려달라” 총독부 징발·창경궁에 방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 의해 징발돼 창경궁으로 옮겨진 ‘고려시대 오층석탑’을 사찰로 다시 모시는 운동이 펼쳐진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스님)는 24일 법당 앞에서 ‘성보지킴이 발원 및 창경궁 소재 고려석탑 이원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10월21일 현재>

고려 중엽 조성된 창경궁 오층석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창경궁 훼손과 때를 맞춰 사찰에서 징발된 뒤 조선왕궁인 창경궁에 이르는 물론 원소장처 등 관련 기록도 없이 100년 남짓 방치돼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4월 문화재지킴이(대표 혜문스님)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가 완료(2013년 11월)되면 적정장소를 협의해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전계획이 진전되지 못했다.

창경궁 훼손과 때를 맞춰 사찰에서 징발된 뒤 조선왕궁인 창경궁에 이르는 물론 원소장처 등 관련 기록도 없이 100년 남짓 방치돼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4월 문화재지킴이(대표 혜문스님)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가 완료(2013년 11월)되면 적정장소를 협의해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전계획이 진전되지 못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천진불 미소

조계종 직할교구가 수도권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개최한 제4회 천진불 어울림마당. 어린 이법회의 싹을 틔우기 위해 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총무원장 지승스님도 이날 만큼은 어린이들의 웃음꽃에 묻혀 동심으로 돌아간 듯했다.

▶관련기사 3면 장영섭 기자 fue@bulgyo.com



社告

2015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을 위한 '2015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2014년 11월 10일(월)~12월 10일(수)까지
- 응모대상: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단편소설 부문(2000자 원고지 70매 내외)
-평론 부문(20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동화 부문(20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시·시조 부문(5편 이내)
- 상 금: -단편소설 500만원
-평론 300만원
-동화 300만원
-시·시조 300만원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선작 상금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 선정
- 관련법에 의한 재산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 당선작발표: 2015년 1월 1일 신년특집호(당선자 개별통보)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경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 유의사항: 1. 결빙부에 신춘문예 헌상공모작품(응모분야)임을 명기해주시십시오. 서류봉투에 담아 접수 바랍니다. (일반우편봉투 접수 불가)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취소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한 작품에 한하여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작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맨 첫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품내용 안에 이름 등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접수시 한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bud22@bulgyo.com)
- 문의: (02)730-4489(신춘문예 담당)

《열린비구니모임》 지지 성명서

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발족된 우담바라회로부터 시작하여 1985년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개명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전국 비구니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지난 10월 13일 ‘(가칭)열린비구니모임’ 공동대표(혜운, 임대, 정현, 행법 스님)가 140여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 의지를 밝히며 제16대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과 제16대 중앙총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열린비구니모임의 행보는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에 불만을 품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이번 종회의원 선출과정에서의 파행적 모습이 발화기 되었지만, 이미 그동안 제10대 비구니회 집행부(회장, 명우스님)가 과연 6천여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인가에 대해 의식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특히 운영위원장(계환스님)의 극심한 파행에 대해 걱정의 한목소리를 내곤 하였다.

과연 지금의 전국비구니회는 누구를 위한 비구니회인가!

참으로 우린 통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전국비구니회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는 용기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편 ‘열린비구니 모임’은 출범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진정한 대중의 행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 교수와 강사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첫째, 열린비구니모임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 둘째,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속히 소집하라.
- 셋째,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불기2558(2014)년 10월 22일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을 심려하는 교수·강사 모임》

본각 능인 대한 명선 명오 명오2 문성 범경 벽공 서광 선정 성법 수경 여현 오인 원과 원영 은광 일연 일장 일중 자록 정도 정은 제마 지은 지현 철우 해주 행운 혜원 희철 호탄